

† 찬미예수님

복음 말씀의 마지막 유혹에서 악마는 예수님께 땅에 엎드려 악마에게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합니다. 이는 ‘내가 찾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주님께 바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내가 주님 뜻에 맞추려 하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내 뜻에 따라 주어야 만족하는지?’ 이 점을 성찰하는 한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3월 5일 복음 말씀 사순 제 1주일

<예수님께서서는 사십 일을 단식하시고 유혹을 받으신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4,1-11

1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2 그분께서는 사십 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 3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4 예 수님께서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5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6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 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주리라.’” 7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8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 주며, 9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10 그때에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11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종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주임 신부 이야기

사순시기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사순시기’하면 먼저 우리가 가진 선입견 때문에 무거운 마음이 들겠지요. 주님의 수난과 죽음의 심을 묵상하는 것이 이 시기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의 지극한 사랑을 묵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극기와 희생 그리고 다양한 절제의 생활이 바람직하겠으나, 이러한 생활은 자칫 의지의 부족으로 나중에 자괴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그 동안 하지 못했던 영신수련과 애덕을 ‘하자’라는 쪽으로 생각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순시기 동안 평일 미사 주 1회 참석하기, 복음 읽기, 매일 선행 한번 실천하기, 동료에게 커피 타다 주기, 아침에 웃으면 인사하기 등등. 보다 가벼우면서도 실천하기 쉬운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사순시기는 ‘무엇을 안 하는 시기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무엇을 하는 시기’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2017년 사순시기를 바쁜 일상생활에 밀려가는 무의미한 시기가 아니라 나의 내면을 가꾸는 멋진 시간으로 보내면 좋겠습니다. 벌써 봄소식과 함께 뭔가 기쁨과 활력이 솟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2017년도 3월 첫째주 공지입니다.

<지난 행사>

빈첸시오 홀리스 저녁 봉사 - 2/23 목

빈첸시오 홀리스 저녁봉사에 참여해 음식 준비 및 배식을 도운 김정호, 장 익, 전진영 형제/자매님, 감사합니다. 또한 지난 주일 회합에서 다른 멤버들과 경험/느낌을 나누어 주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많은 하모니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전신자 사진 촬영과 설거지 봉사 - 2/26 주일

'공동체 일치'를 위한 전신자 사진 촬영 후 제공된 점심 식사 후, 하모니와 뜨락회가 설거지 봉사를 했습니다. 손발 척척 맞춰 기쁘게 봉사한 류은정, 전재민, 장익, 권창모, 문지영, 홍상미, 이상훈, 김현경, 최보나, 김정호, 안해준, 전진영, 그리고 뜨락회 형제/자매님들 감사합니다!

재의 수요일 전례 - 3/1 수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 미사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와 저녁 7:30**에 있습니다. 단식과 금육을 지켜 주세요. 주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시기를 거룩하고 의미있게 보낼 수 있도록 재의 수요일 미사에 참여합시다.

성시간: 3/2 목

매달 첫째주 목요일 저녁미사 (7:30)와 함께 성시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 바랍니다.

성시간: <http://info.catholic.or.kr/dictionary/view.asp?ctxIdNum=1764&keyword=%BC%BA%BD%C3%B0%A3&qubun=01&qubun=01>

청년 창세기 성경모임 - 3/4 토

조마오로 수녀님과 함께하는 청년 창세기 성경 모임에 함께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3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소망방에서 첫 모임과 함께 오리엔테이션**이 있을 예정이니 연락 / 신청 바랍니다.

탁구/배드민턴 - 3/5 주일

3/5일 주일은 오랫동안 야외 활동을 생각했으나 비 소식으로 인해 실내 운동인 탁구와 배드민턴을 하기로 했습니다. 미사와 하모니 회합 후 즐겁게 함께 운동해요. 편안한 복장과 신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참고)

사순시기는 재의 수요일부터 (3/1) 부활절 (4/16) 전까지 여섯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으로, 통회와 보속 그리고 희생으로 재를 지키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동안 재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은 금식과 금육을 함께 지켜야 하고, 재의 색은 보속과 회개를 의미하는 보라색으로 바꾸며 미사 전례에서 대영광송과 알렐루야를 생략합니다.

사순절동안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40일동안 엄재하신것을 본받아 **희생하고 봉사**하며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계명에 충실하도록 해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 극기와 절제를 하고, 가난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특히 십자가의 길을 자주 바침으로써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결국 사순 시기는 **'행동하는 시간'**입니다. 참으로 경청한 뒤에 우리는 '응답해야'하며 우리가 들은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내적인 회개**를 하느님께 바치는데, 이것이야말로 부활절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전례: 사순시기 동안,

- 십자가의 길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그리고 주일 아침미사 전 7시 20분과 교중미사 전 10시 20분부터 '십자가의 길'을 봉헌하고 미사를 봉헌합니다.

- 부활판공성사

매 미사 30분전부터 고해성사가 있으며, 판공성사표를 작성하여 고해실 안 바구니에 넣으면 됩니다.

사순시기 성경 쓰기

사순시기동안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쓰고 필사한 노트는 **부활 성야 미사때 봉헌**합니다. 사순시기동안 참회와 기도, 나눔과 자선, 그리고 성경쓰기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은총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준 스테파노 형제 연미사 - 3월 매 주일

3월 19일은 주님의 곁으로 먼저 떠난 뜨락회 (현 하모니) 이상준 스테파노 형제님의 세번째 기일입니다. 우리곁에 계속 있었다 라면 하모니 멤버로서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겠죠. 형제님을 기억하며 3월 매주일 연미사를 봉헌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을 추억하며 형제님과 유가족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본당 웹사이트 새단장

본당 웹사이트가 멋지게 새로이 단장 했습니다. <http://www.oakcc.org> - 자주 방문하며 성당 소식을 함께 나누고 가톨릭에 대한 여러 좋은, 유익한 정보들도 얻고 나누시길 바랍니다.

밴드 활성화

하모니 SNS인 밴드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거나 최근에 새로 오신 분들, 아래 링크로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http://band.us/n/aea2T3f9B3UcO>

새신자 소개 - 환영합니다!

김동은 글라라

앞으로 기쁜 신앙생활 함께해요~

<리마인더>

10 PM 기도

저녁 10시에 가족을 생각하며 '가족의 기도'로 *주모경(주의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드립니다.

(*주모경은 주의 기도와 성모송을 뜻하지만 통상적으로 '주모경'을 바칠때는 주의기도, 성모송, 영광송의 세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복음서(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매일 복음서를 조금씩 접하며 복음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모니: harmonycatholic@gmail.com

SNS Band: <http://band.us/n/a4a8Q4J3Kf0fw>

2017 하모니 회장단

전진영 베로니카 [510-229-2464](tel:510-229-2464)

홍상미 세레나 [510-418-6677](tel:510-418-6677)

안해준 야고보 [415-730-0653](tel:415-730-0653)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enter

6226 Camden Street

Oakland, California 94605

Tel: [1-510-553-9434](tel:1-510-553-9434)

Web: www.oakcc.org